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종교개혁 주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종교개혁을 통해 그동안 가려졌던 십자가의 복음이 재발견되어 다시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가톨릭과 인본주의를 넘어서 복음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루터가 내건 개혁의 강령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이었습니다.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근거한 것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가려져 어두웠던 중세 독일에서 당겨진 이 개혁의 불꽃은 유럽 대륙을 뒤흔든 폭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존 칼빈은 루터의 강령에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두 가지를 더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가톨릭 변증학자들이 이 강령 중 ‘오직 성경으로’를 거칠게 공격하는 이유는, 이 교리만 무너뜨리면 종교개혁자들의 다른 원칙들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만큼 세계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으로 더 깊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제 2차 학습, 세례, 입교식

일시: 10월 29일(오늘) 찬양예배시
장소: 본당

다음 주일, 제 7차 성찬식

일시: 11월 5일(주일)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 성결한 삶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위원회 교사 모집

■소망부 교사 모집

- 분야: 반교사, 행정교사, 보조교사
- 장소: 본당 1층 갈릴리홀
- 시간: 주일 12:00~13:00
- 문의: 최준호 목사(010-9036-8229)

■사랑부 청년반 신입교사 모집

- 분야: 반교사(양육교사), 찬양팀 교사, 행정교사, 보조교사
- 장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 시간: 주일 11:00~12:00
- 문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에바다부 교사 및 헬퍼, 스태프 모집

- 분야: 교사, 찬양팀 연주자, 방송 스태프 등
- 장소: 제2교육관 3층 및 본당 방송실
- 시간: 신청서에서 확인 (다양한 시간)
- 신청: 우측 QR코드로 신청서 작성
- 문의: 김유석 목사(010-5845-4645)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

10.29~11.12(주일) 문의: 임대영 목사 (010-5449-9224)

부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품양육부, 어와나부

교사지원분야

반교사	맡겨진 어린이(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
예배팀교사	예배와 관련된 영상, 자막, 좌석 배치, 디자인등으로 섬기는 교사
행정교사	출석관리, 디모데교적관리 등 부서에 필요한 문서와행정관리 교사
기타	보조교사, 새신자 교사

* 부서별 예배 시간과 장소는 8면 참고

* 신청서는 본당입구에서 작성하고 신청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제2차 유아세례식 및 교육 안내

유아세례교육: 11월 5일(주일)~11월 26일(주일) 총 4주간
유아세례식: 12월 3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신청 대상: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교인 부모
(부모 모두 세례교인이여야 함)

신청 기한: 11월 5일(주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큐알코드)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



날짜	시간	교육내용	담당
11월 5일(주일)	14:00~15:00	유아세례의 성경적 의미	박요셉 목사 (제 1교육관 302호)
11월 12일(주일)	14:00~15:00	하나님의 언약과 유아세례	
11월 19일(주일)	14:00~15:00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11월 26일(주일)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문답(해당 교구 & 부서)	
12월 3일(주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14:50까지 본당 입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35-39)



히브리서에는 바울 서신과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를 부정합니다. 저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보기에 여러 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얻게 된 혜택 중 으뜸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길은 이전에 있던 그 어떤 길과도 다른 길이자, 새로운 길이며, 유일한 살 길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살펴보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막 1:1-2)” 신약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길을 내는 사역이라 칭하는 이유이자,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 부르는 까닭입니다.

율법과 제사

출애굽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 갈래의 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은 영적인 시각에서,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이자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게 하셨으며,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여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신약성경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중심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설명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뿐 아니라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신 길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새롭게 열린 길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이에 비하여, 히브리서는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다룹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에서 10장 앞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제사제도에 관한 부분을 통하여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복잡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박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 머물지 아니하였듯, 우리도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주제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 3:11)” 로마서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서도 반복되는 이유는, 구약성경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성품의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가 무너지고 헛된 논쟁이 무성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방관하시는지(합 1:13)’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셨노라 결단했습니다 (합 2:1).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속히 올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나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고난의 시대입니다.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져 가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8절)” 본문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가르쳐줍니다. 성도로서 살아감에 뒤로 물러서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찾아드는 유혹에 미끄러짐을 가리켜 ‘물러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영어성경에서는 ‘Shrink Back’이라 표현을 하는데, ‘움츠러들다’, ‘쪼그라들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물러서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압력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바른 생활로 나아가는 일에 다가오는 유혹과 미혹으로 표류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22-23)”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길 간청했던 아버지에게 하셨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너희는 물러서지 마라. 믿음을 갖고 살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약해지지도 쪼그라들지도 마라’고 도전하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하박국 선지자는 곧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 다소 소출이 적더라도, 원하는 바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언제든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5절)” 이를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6절)” 인내도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신뢰하며,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Hebrews 10:32-39)

Rev. Kyu Sam Han

Hebrews has a unique attraction different from other Pauline epistles. When I was young, there were some who said Hebrews might have been written by Paul, however, the result of recent studies negated this assumption. I also think there are too many unreasonable factors in claiming Paul wrote Hebrews in several respects.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inaugu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that is, through His flesh,(Heb 10:19-20)" The best out of the benefits we have obtained from the treasure-like blood of Jesus is the fact that we have th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This way Jesus created is a different way from any of the former ways, a new way and the only way of life. According to the sacrificial system of the Old Testament, the way to the holy place was blocked by the veil so that only a special person could enter on a special day. However, due to the blood of Jesus, there occurred a way in which saints could meet Jesus directly face to face.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just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Behold, I am sending My messenger before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Mark 1:1-2)" That's why the New Testament indicates the ministry of Jesus is the ministry of producing the way and refers to John the Baptist as the last person of the Old Testament preparing the way of Jesus.

The Law and sacrifices

There appear two ways of approaching God in Exodus. The event that the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through the lead of Moses was the liberation from the bondage of slavery as well as the liberation from sins from the spiritual perspective. One step further, God did not allow the Israelites to stay in the wilderness but led them to Mount Sinai and gave them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Tabernacle. God arranged for them to reach Him through obtaining righteousness by observing the law and also opened the way to remission of sins by offering sacrifices when they broke the law. This context also continues in the New Testament. The Apostle Paul explains the way to righteousness centering on the law. Examining not only Romans and Galatians but also Pauline epistles, we can understand the way God newly gave us who can not be saved through the law is grace. In other words, the way newly opened through the fulfillment of the law by Jesus is the very way of grace. In comparison with this, Hebrews deals with the way to righteousness centering on the sacrificial system. Especially, through dealing with the sacrificial system from chapter 4 to the front part of chapter 10 of Hebrews, he explains that the sacrificial systems in the Old Testament period were complicated, but there is no more necessity for sacrifices by Jesus' offering up his body as a sacrifice once for all.

Habakkuk, Romans, Galatians, Hebrews

We obtained th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however, as if the Israelites did not stay in the wilderness after they came out of Egypt, we also have to go one step further and live out by faith on this earth. That's the reason why Hebrews 11, which is called the Hall of Faith, shows us the lives of saints who preceded us.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Rom 1:17)" The word that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is the most fundamental theme of Romans. "Now, that no one is justified by the Law before God is evident; for,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Gal 3:11)" The reason why the phrase Paul emphasized not only in Romans but also in Galatians is also repeated in Hebrews is that this word is also recorded in Habakkuk in the Old Testament. Habakkuk, a prophet of an earnest character threw to God a question about why fair and righteous God remains a silent and idle onlooker(Hab 1:13) in a society where justice falls and futile

arguments are exuberant. Habakkuk made a resolution to struggle with the question that we can also embrace today until he could receive the answer from God(Hab 2:11). "Behold, as for the impudent one, His soul is not right within him; But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his faith.(Hab 2:4)" To this, God gave the prophet Habakkuk the lesson to live by his faith till the last day which will come rapidly. Like the circumstance of the period when Hebrews was written, or that of the period of the prophet Habakkuk, today when we are living is also a period of hardships. Since it is getting harder and difficult more and more to live as a man of faith in a world where secularism prevails, we should accept the word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as a lesson for us.

The life of the righteous one living by faith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v. 38)" The text instructs us not only the doctrine that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but also the principle of living by faith. It is that we should not shrink back in living as saints. The Bible defines being slid by the temptations at the moments of living in the world as 'to make a retreat'. The English Bible expresses it 'Shrink Back', which means 'cower', 'draw back'. In other words, the Bible exhorts, 'Do not withdraw from the life that is close to God! Do not drift away due to the coming temptations and pressures in living the right life with right faith.' "It has often thrown him both into the fire and into the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But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e one who believes.(Mark 9:22-23)" What Jesus said to the father who pleaded to cure his demon-possessed child,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e one who believes,' is just the word Jesus gives us now. He challenges, 'You who have faith, do not shrink back. Live with faith, Since I am with you, do not become weak, nor cowered'.

"Even if the fig tree does not blossom, And there is no fruit on the vines, If the yield of the olive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Even if the flock disappears from the fold, And there are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triumph in the Lord, I will rejoice in the God of my salvation.(Hab 3:17-18)" The prophet Habakkuk proposes the image of an exemplary saint living waiting for God who will come soon. When you live on this earth with faith, you can enjoy the life of being pleased and rejoicing at any time even though you have the yield decreased a little and you can not have what you want. That's why we should lead a life of saints who decide before God not to shrink back, rather than a life of holding on to the world. "Therefore,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s a great reward. (v. 35)" For this, the writer of Hebrews says we need confidence. "For you have need of endurance, so that when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ay receive what was promised.(v. 36)" We need endurance, too. "For yet in a very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v. 37)" However, since Jesus promised that he would come soon, we do not crouch down but can move forward in hope.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trust in the promise which is not yet fulfilled, do not shrink back, move forward boldly enduring, and become righteous one who is living with faith in Jesus Christ.

2023년 어린이성교육 캠프 & 토기세 후기

세상에서 창조질서에 어긋난 교육과 법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때에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초등부에서 전학년(1~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성교육 캠프를 토기세와 연결하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 성(性)교육”이라는 주제로 자체 교재를 만들었고, 9월23일 학부모 워크숍을 시작으로 학년별 교육을 10월 1~3주 토요일까지 유년부 66명, 초등부 44명의 학생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교육의 주체자인 부모와 자녀가 마음으로 다시 연결되어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으로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육을 감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유년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이 날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날이 오니 정말 기쁜 하루였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2학년 학생

엄마랑 아빠랑 싸웠는데 사과를 못한 게 후회된다. 남의 몸을 만지는 것이 스킨십인데 나쁜 스킨십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3학년 학생



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재밌었고, 감동적이었지만, 재밌는 놀이를 많이 못해서 아쉬워요. 엄마의 진정한 뜻이 이것이었군요. 그동안 엄마에게 짜증내고 그랬던 일들 죄송해요. 오늘 일은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을게요. 그동안 저 땀에 생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불효자 용서해주세요 ㅍㅍ 3학년 학생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남자와 여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재밌고 최고였어요! ♡

초등부 4학년 안예은 학생



초등부

성에 대해 잘은 몰랐지만 이제 건전한 성, 올바른 성을 배워 기쁘다.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진 기분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을 나도 드디어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는 사실에 조금 울컥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니 기뻐다. 또 나는 어른이 되어 옳은 성 가치관을 갖고 살기로 다짐했다. 초등부 5학년 조연우 학생

이번 여성캠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부로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적인 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여성캠프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6학년 조아인 학생

3학년 아이들과의 마지막 추억여행! 1박 2일로 준비한 여성캠프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된 마음과 지친 육체로 얼룩져 있었다. 그런 내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지친 나의 영과 육을 만져주셨다.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의 그 한마디에 '그래~이거야!' 교사의 사명과 기쁨을 여성캠프를 통해 되찾게 해주신 주님 때문에 저는 더 행복합니다.^^ 3학년 교사



할렐루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초등부 <여성캠프>에 교사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성캠프> 후 실시한 평가회에서 다른 학년의 학생들에게도 가치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었는데, 실제로 올해 4, 5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많은 수의 4, 5학년 학생들이 참가하여서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학년 학생들은 교회에서 1박을 하며 한층 가까워지는 친교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등부 한주선 교사

아들에게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부모님의 사랑과 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 감동의 눈물을 펄펄 흘리며 인생의 중요한 한 장면 지나가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쁘고 감사했다 고백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 아버지는 어느 누구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유초등부 학부모



순결서약

아이가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너무 감동적이잖아~'라며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일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성에 대한 과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본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함께해 주신 목사님 선생님들 너무 고생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초등부 학부모



에바다부 베트남 선교 후기

- 베트남 하노이, 10월 3일(화) ~ 10월 9일(월) -



나는 '경험도 없고 수어도 부족한 내가 왜 내가 거절을 못했지?' 하며 살짝 두려워했다.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에 올랐다. 비행기에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살려주시라고 울면서 회개기도를 했다. 걱정을 앞세운 것을 회개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니? 아니야, 내가 한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우리 팀원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열심히 그 자체였다. 팀장: 김종선 권사



베트남에 선교를 간 것은 2019년이 처음이었는데, 4년만에 다시 가게 되었다. 전도 집회를 위해 가는 지역마다 차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갔다. 자연스럽게 차 안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옆에 앉은 농인 자매가 나를 잘 안다고 하며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2019년 선교 때 고아원에서 만난 학생이었다. 정말 깜짝 놀랐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다. 총무: 정영미 집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설렘 반 두려움 반 선교를 준비하였다. 흥옌, 하이즈 영, 빈푹, 푸토 등 가는 곳마다 베트남 농인교회 랍 목사님과 윤다니엘 선교사님, 호아 전도사님, 농인 집사님들과 우리 팀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 믿지 않는 농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베트남 농인교회 성도들과 우리 선교팀은 환호하고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음의 귀한 맛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통역: 강가일 사모



흥옌에서는 이단의 강제전도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던 농인 2명이 영접기도를 했다. 예수님을 믿는 미국 농인 남편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해 베트남 아내를 전도하기 매우 어려워했는데, 우리의 도움을 받아 믿음을 결심하게 되었다. 일 때문에 교회 출석을 고민하면서 망설이던 농인, 빈푹에서 푸토로 와서 복음을 들었던 농인까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다. 베트남 농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생각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서기: 양윤영 집사



해외 단기 선교는 처음이라 많은 설렘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선교팀과 베트남 농인 성도들이 모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때부터 한 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이던 농인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졌다고 들었는데 베트남 농인들이 예상보다 많이 모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계: 김미진



한국 수어도 부족했던 제가 베트남에 있는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베트남 수어를 단기간에 익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던 농인이 믿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영접기도를 올렸던 순간은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부회계: 김현수 집사

저는 10년 만에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며 해맑은 미소를 지어주는 베트남 농인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헤어질 때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쉬워했던 베트남 농인들이 벌써부터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팀과 베트남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칩니다.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료: 박영진 집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농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나눠주고 그 일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수어의 장벽과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또 우리에게서 흘러간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름답고 잠재력 많은 베트남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 김희정 집사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



지난 10월 17일(화)에 우리 충현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와 함께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개최한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2'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며,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의 방법과 사례, 그리고 유익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금번 컨퍼런스는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 주제는 작년 우리 충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가 2022년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교회에 소개 되었고, 이로 인해 2023년 처음 성경통독을 시작한 교회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금번 컨퍼런스에는 1300여명이 참여했고, 이중 370여명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컨퍼런스의 오전세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피터 릴백 총장의 인사와 조나단 김슨 교수의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강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목사의 "성경과 성령, 주님과 밀착"이라는 주제 강의와 충현교회 한규삼 담임목사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주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규삼 담임목사는 강의 말미에 "충현교회 성경통독 2독 현황과 유익에 대한 실제 사례와 지표"를 제시 하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2독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는 2023년 한 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로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2독에 대한 도전과 그 이상의 다독을 향한 목표를 제시하는 시간이었으며, 아직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를 시작하지 않은 교회들에게는 2024년 목회 방향을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으로 안내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의 유익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사역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 컨퍼런스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충현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라는 무브먼트에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여 말씀으로 한국 교회와 강단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헌신과 다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충현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다

2023. 10. 17. (화) 09:30 - 15:30 충현교회



7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후기

2023년 10월 29일 · 제1799호



주간
충현



충현교회
상근직원모집

교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회계직원 0명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타교인은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및 기한 : 이메일 접수(eohyun2@naver.com)
문의: 사무국 552-8200(401), 010-4181-1714

집사회 일례회

일사: 2023년 10월 29일(주일) 12:10

장소: 집사회 사무실

핸드벨 연주대 대원 모집

문의: 강순 권사(010-3499-7391)

교회학교 신입교사 지원자격

1. 세례, 입교인이며 본 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 되신 분만 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역자와 개인 면담 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로 임명됩니다.

3. 신입교사 교육 참석 *추후공지

예배 담당(11/1~11/5)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1/1	수요 I	사김 (요일 1:1-4) 권순동 목사	김상래	이정화
11/3	금요집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롬 7:1-6)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11/5 제7차 성찬식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첫 사랑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 (계 2:1~7) 한규삼 담임목사	김승래 정석훈 전영재	김철남 박건일 배종락
	주일찬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 (요 13:5-15) 임대영 목사	신경철	홍탁성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0/30~11/5)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30 (월)	정석훈/정구익	왕상 22:29-40	8교구
31 (화)	한규삼/최현구	왕상 22:41-53	전교인
1 (수)	박성덕/조주성	오바다 1:1-9	전교인
2 (목)	윤준식/김광진	오바다 1:10-21	5교구
3 (금)	이기영/유병규	욥기 1:1-12	1교구
4 (토)	강성은/강성은	욥기 1:13-22	전교인
5 (주)	위안복/위안복	욥기 2:1-13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문진호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9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년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년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년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12교구(르투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충현평생대학원	주간교육 (목) 오전 11:00	충현복지관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808	구홍진	기본과정	
2	1810	박지영	기본과정	
3	1811	구다은	기본과정	
4	1812	구다빈	기본과정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800	강승림	기본과정	장정윤
2	1807	김아윤	기본과정	
3	1813	송미경	기본과정	여정광
4	1814	이정희	기본과정	이희우
5	1815	한아름	기본과정	
6	1817	김은혜	기본과정	
7	1819	박양태	기본과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297	강승림	청년1부	
2	1449	김아윤	청년1부	
3	1520	송미경	청년1부	
4	1521	이정희	청년1부	
5	1639	한아름	청년1부	
6	1642	김은혜	청년1부	

결혼

1. 윤성하 군(윤기철 씨, 최규희 씨의 아들)과 김하은 양(김중수 집사, 김형옥 집사의 딸, 8교구) / 11월 4일(토) 12:00 옥수동 성당 3층 대성전

별세

1. 김희자 명예권사(5교구) / 20일 별세, 22일 장례
2. 이의복 은퇴권사(9교구, 심정태 성도의 모친·박은주 권사의 시모, 6교구) / 21일 별세, 23일 장례
3. 이상선 은퇴집사(하두연 은퇴권사의 남편·이형민 성도, 이평화 성도의 부친, 3교구) / 21일 별세, 23일 장례
4. 고근하 은퇴서리집사(이현옥 은퇴권사의 남편·고동우, 고성민 성도의 부친, 8교구) / 22일 별세, 24일 장례